

목포시, 만호·유달동 일대 '1897 개항문화거리' 조성

기반마련 종합정비계획 수립
향후 목포 100년 청사진 구축
지역축제·청년창업 지원 추진

'지붕없는 근대역사박물관'으로 불리는 전남 목포시의 원도심 일대가 풍부한 역사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1897 개항문화거리'로 조성된다.

김종식 목포 시장은 4일 "목포는 우리나라 대표의 근대역사문화도시로서 원도심 일원은 근대역사가 응축된 핵심 지역이다"면서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원도심 일원을 역사 속을 거니는 도보여행의 중심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는 1897년 10월 자주적 개항을 통해 근대도시로 본격 성장하면서 원도심 일원도 동반 성장했다. 유달산에서 근대역사관 1·2관 방향으로 펼쳐진 목포 원도심 일원은 100년전 목포의



야간형 문화향유 프로그램 '목포야행'에 참가한 관람객들로 북적이는 목포 원도심 근대역사관 일대. /뉴스스

최고 변화가로 근대역사문화자원이 전국에서도 손꼽힐 만큼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근대문화유산이 풍부한 만호·유달동 일원은 '지붕없는 근대역사박물관'으로 불린다.

이 곳은 2018년 8월 전국 최초 공간 단위 문화재(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국가등록문화재 718호)로 등록됐으며, 2019~2023년 5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기반마련을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다. 종합정비계획을 통해 근대문화자산 관리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향후 목포 100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목포시 원도심 일원은 지난 2017년 정부의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됐다.

2018년부터 5년 동안 9개의 마중물 사업에 총 사업비 316억5000만원을 투입해 만호·유달동 일원 29만㎡가 새롭게 단장된다.

청년 등의 창업지원 등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과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사업 등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이다.

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축제인 '건맥 1897 축제', 견해산물 소포장 브랜드 개발사업 등도 추진되면서 원도심이 오랜 침체에서 벗어날 기회를 맞고 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안동시

교통유발 부담금 30% 감면

경북 안동시는 이달 중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일괄 30%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 일괄 30% 감면해 부과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다.

기초자료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 용도에 따라 10월에 차등 부과된다.

/안동(경북)=문봉현 기자

경북도, 가축질병특별방역 추진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 지정
소·돼지 생분뇨, 타지역 이동 제한

경북도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을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질병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경기 북부와 강원 등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계속 확인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올해들어 우리나라 주변국과 유럽에서 고병원성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어느 시기보다 발생 위험이 높다.

경북도는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가축질병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도와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 도내 시군, 생산자단체 및 방역관련 단체 등에는 가축방역상황실이 설치돼 24시간 운영된다.

도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맞춤형 방역으로 이 달과 내년 4월에 일제 백신접종을 하고 접종 1개월 후부터 백신접종여부 확인검사를 하기로 했다.



경북도청 전경

특히 가축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구제역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소, 돼지 생분뇨(퇴비나와 액비 등으로 처리된 분뇨는 제외)는 대구경북권내에서만 이동을 허용하고 타 지역으로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선 소규모 농장과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에 공무원 전담제를 실시하고 철새도래지와 대규모 밀집사육단지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과거 발생지역 등 발생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가금사육 농가의 축산차량의 출입을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안동(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

경북도 "풍수해보험으로 재난 대비하세요"

재난 피해 최대 92%까지 보상

경북도가 도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2006년 도입된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 보험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때 주택 기준으로 최대 92%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와 공장(소상공인)이다. 올해부터는 보험 가입대상이 소상공인까지 확대돼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9%를 지원한다.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때 상가는 최대 1억 원, 공장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 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되며 5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경북=문봉현 기자

전남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앞장

인프라 구축·생태마을 20억 지원

전남도는 내년에 친환경농산물 인프라 구축사업과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을 선정해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저장·유통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 대상자로 영암군 신북농협과 함평군 천치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됐다.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이끌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마을을 대상으로 생산·유통시설 등 마을주민이 자체 발굴한 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해남군 방춘마을과 함평군 강운마을이 선정됐다.

전남도는 지난달 말까지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를 추천 받아 서류 및 현장

평가를 갖고, 최근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전문가와 대학교수 등이 참여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앞으로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와 협력해 가공·유통을 확대함으로써 참여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지난 2013년부터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34개소)에 184억원을 지원했으며, 유기농 생태마을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27개소, 79억원을 지원했다.

이정희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생산자단체에 생산·가공·유통시설을 지원해 6차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유기농 생태마을이 도시민의 힐링 공간이 돼 도·농상생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광주광역시청

광주시

학자금대출 이차지원 접수

광주시는 2020년도 2학기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오는 5일부터 11월16일까지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10월5일 현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광주 소재 대학 또는 대학원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이며, 2017년 1학기부터 2020년 2학기 사이에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한 학자금의 발생 이차 6개월분(2020년 7~12월 발생이자)을 지원한다.

지급시기는 신청자 적격심사 후 12월 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김태수 기자

광주북구, 지자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8년 연속 수상... 1억 인센티브 확보

광주시 북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자리를 잘 만드는 지자체로 선정됐다.

북구는 최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2020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광주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1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일자리대상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과 창출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리로 북구는 지자체장의 임기 중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평가받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민선 7기 들어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이자 지난 2013년 이후 8년 연



광주광역시 북구 전국일자리대상 2년연속 최우수상 '수상'

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북구는 지난해 '현장 중심의 일자리, 손에 잡히는 일자리, 주민과 소통. 협력하는 일자리'를 핵심으로 직접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찾아가는 기업.고용 민원해결단 운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역대 가장 많은 1만 2522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광주=강성대 기자 ksd1008@

광주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광주시는 광산구 하남주공과 북구 각 화주공의 그랜리모델링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70세대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광산구 하남주공은 대학생 8세대, 주거약자 20세대, 다자녀 5세대 등 모두 33세대, 북구 각화주공은 대학생 20세대, 주거약자 10세대, 다자녀 7세대 등 총 37세대이며 오는 12월 입주 예정이다.

신청은 10월12~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본부 2층에서 현장접수로만 가능하다.

접수는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방명록 작성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12월 중순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입주대상자에게는 해당 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계약체결을 위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